

사회

# 이름값 못하는 광주 브랜드택시 'N콜'

## 내비게이션·GPS 등 잦은 결함... 카드결제 어려워 운전자 불만

### 市, 책임 떠넘기기 급급

광주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야심 차게 출발시켰던 '광주 브랜드택시' N콜이 잦은 '콜'시스템 기기결함 등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소중환 시민의 혈세로 이 사업에 수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광주시는 관리 위탁을 이유로 책임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09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광주 브랜드택시' N콜(법인택시)과 월드콜(개인택시)을 각각 750대씩 운영중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10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비게이션, 카드기, 미터기, 방범등, 모뎀 등 단말기 설치비용의 70% 정도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콜센터 구축비용으로 N콜과 월드콜에 각각 1억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2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광주 브랜드택시'는 일반콜택시와 달리 위성항법장치(GPS) 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택시를 자동배차하는 방식이다. 또, 일반택시와 요금이 동일하면서도 콜 수 수요가 없고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그러나 최근 N콜 택시에 장착된 내비게이션과 GPS 장치 등이 잦은 결함을 일으켜 택시기사들이 불만을 겪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N콜에 기계를 납품했던 업체마저도 부도가 나면서 수리부품 공급은 물론

내비게이션 등의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도 어려운 상황이다.

N콜 택시를 운영중인 김모(58)씨는 "지난 석달 사이 모두 12차례의 기계결함으로 수리를 했다. 우리 법인택시회사에서만 모두 18대가 지난 여름 이후 기계결함을 일으켰다"며 "나를 포함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들의 입장에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본보가 N콜 택시에 가입된 법인택시 업체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본 결과 김씨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이 상당수였다. N콜의 하루 평균 콜 건수는 함께 출발한 '광주 브랜드택시' 월드콜(3400여건)의 절반 수준인 17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기계결함으로 인한 배차 지연, 카드결제 결함 등의 문제가 N콜에 대한 시민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광주시가 당초 보조금을 지원했던 N콜 46개 법인 750대의 택시 중 3개 업체가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금은 43개 법인 721대만 운영중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적당 관리주체인 광주시는 N콜 운영사업자인

동부NTS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실태 파악도 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타시도에서도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 2007년부터 추진, 보조금을 지원했다"며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에 관리 위탁을 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동부NTS 관계자는 "지난여름 많은 기계들의 CPU 등이 파손되고, 납땀업체가 부도나 어려움이 있다"며 "올 연말 안에 기계교체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우석법인 해체하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지난 29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개최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해당 학교 운영법인인 '우석'의 해체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고 성추행 의혹사건 교육청, 학생 전수조사

광주시교육청이 모 여고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광주 교육계에서는 유례없는 일로, 최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교단에서 성범죄를 단절하겠다는 광주시교육청의 의지가 엿보인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교육감 홈페이지 게시판에 "교사 성희롱을 했다"며 도와달라

는 학생들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학생들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해당 교사가 조끼 주머니 속 명찰을 꺼내면서 특정부위를 만졌다', '나는 정력이 세다'는 등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 1차 구두 조사를 마쳤으며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주장을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금명간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신종대 대구지검장 돌연 사표

### 경찰, 여수산단 비리 수사중 금품수수 메모 발견 내사

### 檢 "수사종결 압력 없었다"

신종대(51·사법연수원 14기) 대구지검장이 최근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내사를 받아오다 돌연 사표를 제출해 지난 28일 수리됐다.

경찰은 최근 여수산단 모 화학공장 하도급 비리 사건(광주일보 10월 27일자 6면)을 수사하면서 관련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업체 중 1곳에서 신 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보여주는 메모가 발견돼 내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신 지검장의 갑작스런 사표 제출로 금품 수수 의혹을 내사 종결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검 한 고위간부는 "전남경찰청에서 내사 종결하겠다고 의견을 물려서 지난 19일 특수부 검사가 승인했을 뿐"이라며 검찰의 종결 개입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도 "확인된 금액이 9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직무 관련성, 대가성도 입증되지 않아 내사를 사실상 종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일과 관련해 신 검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향 선배인 K씨가 본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해 이미 경찰에서 (해당 의혹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금품 수수 사실도 없고 조사를 받은 일도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여수산단 모 화학업체 공장 증설 공사 당시 도장을 맡은 P 업체의 각종 불법 사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검사장에게 수년에 걸쳐 수백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다이어리)를 발견했다.

경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메모에 적힌 1300만원 가운데 수표로 전달된 90만원이 신 전 지검장과 그 가족에게 전달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지적장애 의심 여성 성폭행 미수

### 광안경찰, 30대 구속

광주광안경찰청은 30일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김모(39)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7일 새벽 2시40분경 광주시 광안구 송정

동 주택가에서 귀가중인 주부 A(여·27)씨를 골터로 끌고 성폭행을 시도하며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원스토퍼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환갑 전직 통장님 300m 전력 추격 도둑 잡았다

주인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던 60대 전직 통장이 지병에도 불구하고 도둑을 300m나 쫓아가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30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30분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김모(42·여)씨의 식당에 황모(46)씨가 침입했다. 때마침 세수하고 있던 김씨가 이상한 느낌에 고개를 들었고, 방장고 위에 올라

둔 자신의 핸드백이 낯선 남자의 손에 들려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순간적으로 도둑임을 감지한 김씨는 두 세 발짝 떨어진 황씨의 손에 들려 있던 자신의 핸드백을 낚아채며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내질렀다. 김씨의 손가방에는 현금 120만원 가량이 들어 있었다.

놀란 황씨는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가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씨의 외침을 듣고 곧바로 달려나온 이웃이자 전 통장 김모(61)씨는 300여m에 걸친 추격 끝에 황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황씨에 대해 절도(특가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몇 년전 지병수술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지만 용기를 내 절도범을 붙잡은 김씨에 대해서는 포상을 검토중이다.

김대성기자 bigkim@

## 여수서 차량 추돌 1명 숨져

30일 새벽 1시경 여수 선원동 모방 송곡 앞길에서 김모(27)씨가 몰던 스포티지 차량이 길가에 세워져 있던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새벽나미를 가기 위해 트렁크에서 도구를 꺼내고 있던 카니발 운전자가 숨졌다. 김씨는 중상을 당했다.

경찰은 김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니원침 (8427) 김종두



## 성점대 경관 파면·해임

### 광안경찰, 중징계

광주광안경찰청은 지난 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건 무마를 대가로 성점대 등 중징계를 제공받은(광주일보 9월 30일자 6면) A경장을 파면하고, B경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A경장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탐모씨로부터 대가성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버릇없다" 폭력 휘두른 PC방 알바생

### 성다발

PC방 영업에 방해되는 손님에게 주의를 주려다 폭력까지 행사한 직업정신이 투철(?)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서행.

○30일 광주서부경찰청에 따르면 영모(21)씨는 지난 29일 오후 6시40분경 광주시 서구 중앙동 한 PC방에 방문(16)군이 큰 소리로 떠들며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거절하며 버릇없어 대든다는 이유로 송군의 뺨을 때렸다는 것.

○영씨는 경찰에서 "송군이 평소에도 영씨에 불만이 많았는데, 버릇없이 대드는 모습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리게 됐다"라며 선처를 호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향상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향상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를 튼튼하게 하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점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9(02)04-종-473호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사무지구 시청앞 내공사광주전남지사앞 유지빌딩 501

### 서구 세하동 일반주거지역

서구 세하동 동화마을 부근.전.2차선 도로접합 1,035㎡(313평)(도로 77평포함).매매가 4억 2000만원. 식당. 사무실.기타.적합

### 건물매매(용봉지구)

•북구 신안동 용봉지구 옆 대지367㎡(111평).3층 건물3층 598.8㎡(181평) 매매가4억9000만원. 보증금6,000만원 월330만원.  
•북구 오치동 오치공공앞 대로변 대지298㎡(90평). 건물5층875㎡(265평). 매매가 9억9000만원. 보증금8200만원 월620만원. 상권양호.

### 소태동 잠습지매매.

•동구 소태동 대아아파트 부근. 잠습지.627㎡(190평). 매매가 3.3㎡당 130만원. 복개된 국유지 구거 약 70평 별도 이용가능.

### 완도 독섬 매매.

•완도군 금일면 독섬 매매. 면적 : 198.184㎡(59.950평). 매매가 평당 2만원. 지하수 있음. 종전에 사람이 살았으며 현재 무인도. 생산관리지역

###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호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합. 매매가 3.3㎡당 16만원.

010-3616-8698. 062-233-2222

## 수원지구 상가 분양 전문

학원·병원·한의원·고급식당·독서실·PC방·노래방·실내골프장

1층 근린생활 2층~7층 까지

20평 부터 200평 까지

분양·임대가능

즉시입주가능 시비없음

국민은행위 대방2차 정문 (5,000세대)

신한은행위 모이엘가 아파트 (5,000세대)

롯데마트위 대방5차 후문 (7,000세대)

신한공인중개사 ☎ 062)961-3377

## ★건축시공해드립니다★

(원룸·상가·고시원·도시형 주택전문)

•수익성상가 •안전한재건축식

•노후보장 •퇴직자 환영

설계·건축·분양 임대 (검토부터 기공까지 원스톱)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해드립니다.

★원룸 상가 기타 건축할수 있는 토지

항시 구합니다★

대신중개건설

☎010-6670-9800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선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당)

### 근린시설

•북구 오치동 3층상가주택 대지58평 건평112평

감정가12억 6천만 최저가9억천만

•동구 동명동 조대방4층고시원 대지66평 건평145평

감정가 4억8천만 최저가 3억8천만

•서구 송촌동 3층다가구 대지70평 건평147평

감정가 4억2천만 최저가 2억9천만

### 단독주택

•광안구 윤남동주택 대지 223평 건평 28평

감정가 2억4천만 최저가 1억7천만

### 근린주택

•서구 농성동 3층상가주택 대지99평 건평155평

감정가 4억5천만 최저가 3억1천만

### 상가매매

•남구 월산동 4층상가주택 대지 34평 건평 76평

1층상가 2~3층다가구 4층인도(도시가스,리모델링)

매매가 2억5천만(조정가능)

### 토지매매

•무안군 해례면 천정리 임야 1200평 진일로있음

관리지역(일부 토지)매 평당3만5천(조정가능)

•신안군 자은면 고질리 외기해수욕장앞 101평

계획관리 매매 평당20만원

광주 남구 월산동 구 서부경찰서 사거리 T. 010-4911-4989 FAX. 062-226-3607